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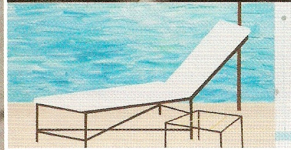
이득욱 1981년생. 충남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이며 2005년 안경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최초의 오페라갤러리 전속 작가이며 올 연말 파리 전시를 계획 중이다.



송은영 1971년생. 세종대 회화과 졸업 후 프랑스 베르사유 미술학교 및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했다. 2002년 창동미술스튜디오 1기 입주 작가로 현재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전속이다.



최영훈 1979년 홍익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사진디자인을 수료했다. 20년 넘게 패션 사진을 찍어온 그가 서울과 토론토를 오가며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전속.



광정희 1973년생. 홍익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차분하고 단정한 작가의 모습은 그의 작품처럼 아름다운 청량감을 준다. 1998년 이후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황나현 1982년생. 경원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홍익대 대학원 동양화과를 수료했다. 대전에서 작업 중이며 현재 안양미술협회, 안양청년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세상 모든 미력한 존재를 위한 위로

Trans brand Magazine  
2010. 여름. Vol. 98 p 28~33



장면8-리버사이드, oil on linen, 100x100cm, 2009, 국립현대미술관

## “가려진 사물들을 위한 개인적인 배려”

### 보이지 않는 것들의 단절과 연결

언뜻 보면 실내 풍경화의 공식대로 잘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 대상은 늘 자고 일어나는 침실이거나 반쯤 드러누워 TV 리모컨을 집어 들 것 같은 거실, 오후 햇살을 받으며 고즈넉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은 테라스처럼 익숙한 것들이다. 그러나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의 그림에는 창틀에 가려진 나무 울타리가, 커튼에 가려진 강물이, 드레스에 가려진 방문이 뜻밖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균형을 깨뜨리며 말을 걸고 있는 이 사사로운 사물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요한 시위 또는 침범이다. 착시 효과를 의심하게 되는 이 틀린 그림들의 정체를 발견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의 위험한 관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다. 모든 가려진 것에 대한 의외의 발견이 그동안 잊고 지낸 2.5cm의 세상을 더 보여줄지도 모를 일이다.



**정현(미술평론가)** 송은영의 작업이 흥미로운 것은 회화적 기법이나 기술적인 완벽함 속에 숨어 있는 현대적 회화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만약 세간의 입체주의적 시각이 고전미술의 형식적 틀과 문화적 허영심을 파괴했다면, 송은영의 방식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적인 그림 이면에 시각의 모순을 담아내고 있다. 회화적 구조를 통해 현대 문화를 번역하고 있는 송은영의 작품 세계는 주제나 배경과 같은 회화적 위계질서를 해체하여 포스트모던한 회화의 한 장르를 구축한다.